

 		2020. 10. 12.(월)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환경보전국	보도자료 PRESS RELEASE	산림휴양과장	이창흡	☎ 710-6760
		산림보존팀장	신익주	☎ 710-6781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도,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조사결과 활용해 '지역별 맞춤형 방제'
 -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...피해고사목 36% 감소 예상 -

□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8차방제 추진계획*을 수립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방제작업에 나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소나무재선충병 8차방제 : 2020년 10월 ~ 2021년 4월

○ 제주도는 본격적인 방제작업에 앞서 8차방제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및 항공·지상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'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'을 수립했다.

○ 방제대상목은 약 5만 3천 본인 것으로 조사돼 예방나무주사 1,500ha를 실시할 계획이다.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산림청과의 절충 등을 통해 79억 원을 확보했다.

□ 제주도는 5대 중점방제전략을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며,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방제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‘무재해’ 를 목표로 관리한다.

- 매월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매일 현장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관리
- 현장 안전매뉴얼을 작성·활용하여 실질적 교육 실시
- 방제작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

* 1차~7차 방제 시 안전사고 : 총 29건 - 사망 4명, 중·경상 25명

2) 한라산국립공원의 청정성 유지를 위하여 국립공원 연접지역 등 선단지에 대한 집중 압축방제를 실시한다.

-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및 해안방향으로 압축방제
- 선단지 및 주요지역은 고사목제거와 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방제

3) 방제사업장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방제품질 향상을 도모한다.

- 전사업장 설계·감리실시 및 작업 구역별 책임제 확행

4) 방제작업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.

- 방제사업은 도내 산림전문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, 사업구별 지역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수급토록 독려

5) 소나무 고사목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한다.

-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
 - ※ 제제소 28개소, 열병합발전소 1개소, 목재열처리시설 6개소
- 다양한 목재수요 감안 및 목재자원화를 위해 도내업체간 형평성 있게 기회부여

□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감소추세에 있다” 며 “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